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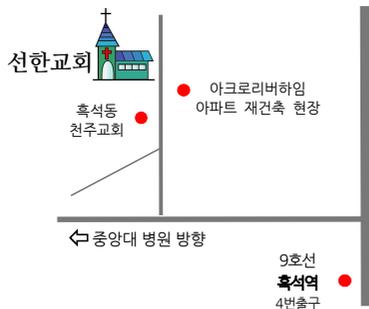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b>주 일 예 배</b>	1부 주일 오전 9:30	<b>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b>	
	2부 주일 오전 11:0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1:00
<b>오 후 예 배</b>	주일 오후 3:30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1:00
	(5째주 셀가족모임)	청 소 년 부 오전 9:50	마 리 아 회 오후 1:00
<b>중 국 어 예 배</b>	주일 오후 4:00	청 년 부 오후 1:00	드 보 라 회 오후 1:00
<b>수 요 예 배</b>	수요일 저녁 7:30	영 어 예 배 오후 3:30	에 스 더 회 오후 1:00
<b>금 요 기 도 회</b>	금요일 저녁 8:30		
<b>새 벽 예 배</b>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b>셀 가족 모임</b>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b>사 역 자</b>	담임목사 임 춘 배	파 송 선 교 사	강 성 규 (러시아)
	교 육 목 사 권 인 혁	협 력 선 교 사	양 병 순 (카자흐스탄)
	전임전도사 김 진 만		이 금 주 (미국)
	협력전도사 오 호 남	국 내 선 교 사	오 인 숙
		국내선교사(협력)	한 배 선
<b>은 퇴 장 로</b>	박 희 태	관 리 장 로	손 석 규
<b>장 로</b>	조 윤 익 (집사장)	5 0 0 / 5 0 교 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김 대 희		(2호) 세종 선한교회
	유 신 웅		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 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효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중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앙대병원)  
 지하철 9호선 혹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사이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혹석로13마길 1 (혹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딤후 2:1)

Be Strong In The Grace

실 천 사 항 선교사의 삶 기도회 참석 서로 돌아보기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야고보서 4:8



담임목사 임 춘 배

**오전 예배** 오전 9:30  
 오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기원	인도자
찬양과 경배	40장 (통일찬송가 43장)
교독문	교독문 34번(시편 81편)
찬양과 경배	301장 (통일찬송가 460장)
예배기도	박희태 장로
찬양	드림성가대
말씀봉독	야고보서 4장 7~8절
설교	<b>마귀를 대적하라</b> (임춘배 담임목사)
헌금드림	윤호중 이성범 이용규
환영및광고	인도자
파송의노래	나는 믿네
축도	임춘배 목사
송영	드림성가대
성도의교제	다함께

**주일 이후**

추석명절

**수요 예배**

추석명절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핸드폰 전원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5 프로젝트** 2025 비전 프로젝트 3단계 '누가할것인가' 가 성도님들의 많은 지원으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제 4단계 세부계획 마련을 10월 말까지 완성하여 드디어 11월부터 마지막 5단계 실행에 들어갑니다. ※ 7구역과 8구역 입주가 11월 말부터입니다.
- 추석 명절 예배 일정** 오늘 예배는 추석명절로 오전 예배(1,2부)만 드립니다. 연휴동안 새벽예배와 수요예배는 가정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 예배실 뒤쪽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예배 일정** 다음주(30일) 오후예배는 셀가족 모임으로 드립니다.
- 예배 준비 안내 및 정리** 각 셀별로 돌아가면서 봉사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예배준비 및 안내가 있습니다. 오늘은 **흑석셀**에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과천셀**입니다.

9월 오후예배 일정		
날짜	제목	강사
9월 2일	구원론 1강	임춘배 담임목사
9월 9일	구원론 2강	임춘배 담임목사
9월 16일	구원론 3강	임춘배 담임목사
9월 23일	추석가정예배	다함께
9월 30일	셀 별 모임	다함께

건축헌금 입금계좌  
 국민은행 025101-04-158561 예금주: 기독교한국침례회선교회  
 입금 후 확인은 재정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석 집사 : 010-4333-6242)

2018년 성경강론 범위						
9/23	9/24	9/25	9/26	9/27	9/28	9/29
	욥기 7장	욥기 8장	욥기 9장	욥기 10장	욥기 11장	

※매주 성경통독 내용과 암송구절은 주보를 참조.

**한주간의 기도제목** 하나님께 모든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구하며 그 뜻 가운데 순종하는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는 은혜를 담임목사님 위에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찬송 :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546장(통 399장)

본문 : 사도행전 2장 14~36절

말씀 : 오순절에 나타난 성령의 강림 사건은 많은 사람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지요. 이에 대해 베드로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의 의미와 이것을 목격한 모든 사람의 현재 상태를 진단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붙들릴 때 자신에게 나타난 현상을 제대로 알게 됩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말을 잘하는 자들이 아니었지요. 이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술 취했다거나 미쳤다고 비방해도 반박할 만한 능력이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한순간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지 않으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뜨거운 감동이 솟구쳐 올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된 증거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오래전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엄청난 일들이 성취된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붙들릴 때 육체에 성령이 부여됩니다. 우리 육체에 하나님의 신이 부여되면 너무나도 큰 은혜와 행복함으로 기뻐할 것이고 미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과 능력, 은혜가 우리 안에서 샘솟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붙들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행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빛을 갠지 못해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종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부여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전 인류에 나타날 새로운 시대의 증표입니다.

바로 이때 징조로서 나타날 피와 불과 연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인도하시려고 사용하셨던 기적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통당하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은 제2의 출애굽 시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주의 택하신 백성을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는 순간을 말합니다.

이때 온 세상을 통치하는 사탄이나 모든 권력자들의 지배와 권력이 흔들리게 되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구원의 능력을 선포할 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시커멓게 변할 것이며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출처 : 국민일보 미션라이프

제목

마귀를 대적하라 (야고보서 4:7-8)

서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넘쳐나는 추석명절이 되시기 바랍니다.

1. 감사의 의미

- (1)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척도이다.
- (2) 감사는 헌신과 봉사의 동력이다.
- (3) 감사는 행복한 삶으로 이끄는 힘이다.

본론

2. 승리를 위한 훈련

- (1) 하나님께 복종하는 훈련(7절)
- (2)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훈련(8절)
- (3) 손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훈련(8절)
- (4)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훈련(살전5:18)

결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섬기실 분	다음 주 섬기실 분
예배기도	박희태 장로	유신웅 장로
헌금위원	윤호중 이성범 이용규	윤호중 이성범 이용규
오후예배기도	가정예배	셀별모임
안내	흑석셀	과천셀

찬양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가 218장/통일 찬송가 369장)
통독	욥기 7장
본문 내용	본장에는 엘리바스의 충고에 대한 욥의 두번째 논쟁이 기록되어 있다. 또한 욥이 갖고 있는 인생관과 그의 탄원적인 기도가 언급되어 있다. 인간의 보편적인 상황으로부터 욥의 특별한 경험이 유추된 본장은 욥이 자신의 허무한 인생관을 토로한 전반부와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는 후반부로 구성되어 있다. 곧 인생의 허무함을 토로하는 욥과(1-10절) 하나님께 호소하는 욥이 기록되어 있는데(11-21절), 욥은 본장에서 인생이 엘리바스가 생각한 것처럼 단순히 장밋빛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한다. 그는 인간의 삶을 군인의 격렬한 전투나 농부의 고된 노역으로 표현하고 있다. 또한 욥은 곤고하고 수고로운 밤과 뒤척이는 밤, 소망 없는 날의 묘사를 통해 자신의 인생에도 또한 희망이 없음을 언급하고 있다. 본서 저자는 이와 같은 인생의 모습을 그림으로써 인간들의 생명과 연한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의도적으로 알리고자 했을 것이다.
생각해보기	
1	<p>욥의 답변</p> <p>(1) 엘리바스의 1차 변론에 대한 욥의 답변이 계속됨</p> <p>(2) 욥은 먼저 인간의 허무한 운명을 말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연약한 인간, 특히 자신을 향해 하나님의 징계가 끊임없이 내리는 사실에 대해서 고통에 찬 회의와 의문을 던짐</p> <p>(3) 욥은 왜 자신만이 숨쉴 틈도 없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혹 자신이 죄악을 행했는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한다고 부르짖음</p> <p>(4) 원망과 불평보다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의로운 섭리를 전적으로 신뢰하는 성숙한 신앙을 갖자.</p>
핵심 단어	<p>1절. 인생. 원어 &lt;에노쉬&gt;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뜻. '깨지기 쉽다, 약하다'에서 유래.</p> <p>2절. 샅. 어떤 일을 하고 나서 받는 돈이나 물건. 모세는 일삿을 저녁에 주도록 명시하였음.</p> <p>5절. 구더기. 원어 &lt;라마&gt;는 흰색의 길고 매끄러운 벌레, 욥의 꿈은 상처에서 나온 것. 합창되었다가. 피부가 굳어졌다가 다시 터짐.</p> <p style="text-align: center;">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p>
기도제목	

찬양과 기도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 나 맡은 본분은 (595장/통 372장)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p>인간 수명 100세 시대에 세상을 먼저 떠난 이들의 묘비명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여인의 인생」, 「목걸이」 등 주로 여성의 삶에 관한 글을 쓰며 우울증과 신경 쇠약에 시달리다 짧은 삶을 마감한 기 드 모파상(Guy de Maupassant)은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는 묘비명을 남겼습니다. 지극한 궁핍 속에 말년을 보낸 소설가 세르반테스는 소설 속 돈키호테에게 이런 묘비명을 남겼습니다. “미쳐서 살다가 정신 차리고 죽었다.” 생명의 주관자에게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 못한 이들은 생의 마지막이 다가올 때 허무함으로 혹은 허세로 가득 찬 말들을 남길 뿐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온 곳과 갈 곳을 분명히 알고, 마지막을 준비하며 살아온 인생은 감사와 기쁨으로 후회 없는 최후를 맞습니다.</p> <p>미국 남감리회 파송 선교사로 내한해 황해도 개성에서 여학교 교사로 봉직했던 루비 캔드릭 선교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급성맹장염으로 25년이라는 짧은 생을 마쳤지만, 그녀는 묘비명이 된 편지 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기까지 사랑하고 섬겼던, 목적이 이끄는 삶의 전형을 보여 줍니다. “내게 줄 수 있는 천 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그 모두를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만약 당신의 생이 오늘 끝난다면 묘비명에 어떤 글을 남겨 달라고 부탁하겠나요?</p>
말씀 나누기	시편 90:1~17
묵상포인트	창조주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피조물인 인간은 연약하고 덧없는 존재입니다. 모세는 우리가 무심코 낭비해 버리는 시간이 사실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는 은총을 내려 달라고 간구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길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음을 망각하고 죄악에 빠져 살면,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수 없습니다. 잠깐 피었다가 시드는 꽃이나 궁수가 쏘아 보낸 화살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는 인생이기에, 하나님 안에서 순간을 영원처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도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됩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모세는 하나님과 인간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나요?(1~6절) 인간이 왜 유한한 존재가 되었나요?(7~11절)
적용하기	나는 어떤 일을 겪을 때 인생의 연약함과 허무함을 느끼나요? 그 일로 인해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한 경험을 나누어 보세요.
함께 기도하기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흠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인생의 마지막 날을 의식하고 오늘 하루도 주님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찬양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 425장/통일 찬송가 217장)
통독	욥기 11장
본문 내용	본장은 소발의 충고가 기록되어 있다. 엘리바스의 충고는 종교적 경험이 토대가 된 것이었고, 빌닷의 충고는 옛 시대의 교훈에 근거한 것인 반면, 소발의 충고는 추론 방식을 사용한 것이었다. 그래서 소발은 개인의 직감이나 상식에 근거를 두고 흑백 논리적인 사고 방식으로 욥을 무조건 죄인이라고 규정 짓고 있다. 본장은 욥에 대한 소발의 질책이 기록되어 있는데(1-6절) 욥이 말이 많고 교만하며,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잘못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정죄를 당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이어 소발의 신관을 기록하고 있는데(7-12절), 소발은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힘으로는 항거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엘리바스의 권고나 빌닷의 변론보다는 훨씬 더 냉혹하게 욥의 회개를 촉구하는 소발의 권고가 기록되어 있다(13-20절). 소발의 권고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는 사상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벌을 주신다는 단순한 흑백 논리이다.
생각해보기	
1	<p>소발의 1차 변론</p> <p>(1) 소발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근거로 욥의 고난이 그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임을 논증함</p> <p>(2) 자신의 무죄한 고난에 대해 변호하는 욥을 하나님앞에서 불경하다고 비난하고 회개를 촉구함</p> <p>(3) 때론 충고가 필요하지만, 바른 충고자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이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의 문제점을 자각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할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눌수 있는 사랑이 전제되어야 한다.</p>
핵심 단어	<p>1절. 나아마. 북아라비아의 헤자즈와 동일한 곳. 소발. '수다 떠는 자, 지저귀는 작은 새'를 뜻하는 이름.</p> <p>2절. 입이 부픈 사람. '입술의 사람' 즉 말이 많은 사람.</p> <p>3절. 자랑하는 말. 원어 &lt;바드&gt;는 '허풍, 잡담, 거짓말'을 의미.</p>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찬양	너 성결키 위해 (찬송가 420장/통일 찬송가 212장)
통독	욥기 8장
본문 내용	지금까지는 엘리바스의 충고와 권면을 기록했지만, 본문부터는 빌닷의 충고가 기록되어 있다. 나름대로의 예의를 갖추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한 엘리바스의 충고와는 달리, 빌닷은 처음부터 비난하는 투의 변론을 시작하고 있다. 빌닷은 이러한 투의 충고를 통해서 엘리바스와 같이 욥이 죄인이라고 단언함으로써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1-7절), 사극한 자에 대한 교훈(8-19절), 무죄한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기록되어 있다(20-22절). 빌닷이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릇된 일을 행하실 수 없는 분이므로 욥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이 재난을 당한 것은 그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빌닷의 주장 속에는 부당한 고난에 관계된 문제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으며, 선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왜 비극과 고난이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도 다루고 있지 않다. 빌닷의 충고는 시의 형태로서 주로 대구적 형태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생각해보기	
1	<p>빌닷의 1차 변론</p> <p>(1) 전통적 원칙론에 입각해 도식적인 도덕주의에 빠져있는 빌닷은 하나님의 공의를 주장하며 '저속한 자'(13)로 표현된 악인은 벌을 받고 '순전한 사람'(20)으로 표현된 의인은 복을 받는다는 철저한 흑백 논리로 욥을 정죄함</p> <p>(2) 빌닷의 흑백 논리적이고 편협된 사고와 인간에 대한 일방적이고 원칙론적인 정죄는 인간의 행위에 대한 유일한 심판자 되시고 깊고 오묘한 섭리로 모든 행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심히 인본주의적이고 어리석으며 교만한 일이다.</p> <p>(3) 고난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기계적인 인과응보론적 정죄가 아니라 따뜻한 격려와 진실된 이해이므로 사랑으로써 그들을 위로하며 의의 길로 이끌어야 한다.</p>
핵심 단어	<p>1절. 수아 사람. 아브라함과 그의 후처 그두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 수아의 후손. 유브라데 강 서쪽에서 살았음.</p> <p>2절. 광풍. 욥의 언설의 허탄함과 거센 것을 나타낸 말.</p> <p>3절. 굽게 하시겠는가. '왜곡하다, 거짓으로 진실을 왜곡하다'를 뜻.</p>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찬양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송가 79장/통일 찬송가 40장)
통독	욥기 9장
본문 내용	본장은 빌닷에 대한 욥의 항변을 기록하고 있다. 욥은 친구들의 변론을 향해서는 인간을 상대적으로 구분한 사실을 들어 반론하였고, 하나님을 향하여는 선악간의 행실을 상대적으로 헤아려 주지 않는다고 불평하였다. 이처럼 끊이지 않는 고난과 친구들의 냉정한 질책 속에서 욥은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불의한 인간과(1-3절)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어(4-14절), 하나님 앞에서의 칭의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 욥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의 욥의 태도와(15-20절) 욥이 말하는 자신의 처지(21-24절), 그리고 생명이 짧음에 대한 탄식이 기록되어(25-26절) 하나님 앞에서 욥의 불평적 태도가 표현되어 있다. 이어 인간 수고의 헛됨에 대한 고백과(27-31절)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한 인정이 기록되어 있다(32-35절). 욥은 인간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말함으로써 빌닷의 논리에 공박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보기	
1	<p>욥의 답변</p> <p>(1) 빌닷의 1차변론에 대해 욥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불의함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위엄을 비교함</p> <p>(2)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의로운 자신을 악인과 같이 재앙 속에서 고난받게 하는지를 항변하며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회의를 품음</p> <p>(3) 그러나 욥은 근본적으로는 주권자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며 그분의 자비를 요청하는 신앙심을 보임</p> <p>(4) 비록 자신의 이성으로서는 명백히 깨달을수 없는 신앙적 난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하나님의 의로우신 뜻 안에서 겸허히 수용하며 그 해결의 실마리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서 찾아야 한다.</p>
핵심 단어	<p>3절. 쟁변하려. '논쟁하다, 변론하다'를 뜻. 즉 옳고 그름을 가리기 위하여 말싸움을 하는 법정 용어.</p> <p>4절. 강박히 하여. '목을 곧게 하는 행위'. 남의 생각은 들어 보지도 않고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는 교만한 행동.</p> <p>9절. 삼성. 오리온 성좌에 있는 별들 중 가장 빛나는 3개의 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힘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됨. 묘성. 황소좌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나타냄</p>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찬양	예수 나를 위하여 (찬송가 144장/통일 찬송가 144장)
통독	욥기 10장
본문 내용	본장에는 하나님을 향한 욥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다. 욥은 본장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기보다는 단순히 자비를 구하며 역설적이고 풍자적인 탄원을 하고 있다. 전장들과는 다르게 자신의 심정을 과격하지 않게, 그리고 친구들의 충고나 변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탄원조의 기도문 형식으로 말하고 있다. 욥 자신의 역경에 대한 항변이 언급된 전반부와(1-7절) 창조주에 대한 욥의 고백(8-13절), 하나님의 엄정한 다스림에 대한 탄원이(14-19절) 기록되어 있고, 후반부에는 죽기 전에 안식을 간구하는 욥의 기도가(20-22절) 기록되어 있다. 본서의 기자는 욥의 이러한 탄식적인 기도 내용을 통해 고통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불평 또는 인간적 원망에 대한 위험성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 대한 정면적인 도전의 자세보다는 하나님의 자비에다 자신의 고통을 하소연함으로써 자신의 고난의 근원을 해결하고 삶의 본래적 의미를 찾으려고 했다.
생각해보기	
1	<p>욥의 답변</p> <p>(1) 욥은 고난의 부당성을 항변하며 하나님께 자신의 고난을 탄원함과 동시에 고난의 해결책으로써 죽음을 동경함</p> <p>(2) 의심과 원망이 일어날때마다 그 마음을 누르고 믿음위에 굳게 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 항상 힘써야 한다.</p>
핵심 단어	<p>1절. 발설파고. '없이하다, 용서하다'를 뜻. 현재의 어려움을 잊기 위해서 고통을 털어놓는 것.</p> <p>2절. 쟁변하시는지. 어떤 사람에게 견디기 힘든 시련을 주는 것을 뜻.</p> <p>3절. 지으신 것. 원어 &lt;예기아&gt;는 하나님께서 수고로이 만드신 작품을 의미.</p> <p>4절. 육신의. 원어 &lt;바사르&gt;는 '살, 몸, 인생, 사람'을 가리킴.</p>
가족들과 함께하는 기도시간	
기도제목	